

# 금남로에 스케이트장·전일빌딩엔 전망대

(5·18 민주광장)

## 문화전당 인근 도심명소 조성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박차  
내년 3월 국비·시비 등 투입  
아카이브·입주기업존 들어서  
특급호텔·시내 면세점 유치도

광주 금남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심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겨울에는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들어서고, 인근 전일빌딩 옥상에는 도심 전망대인 스카이워크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도심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심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광주시는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생활문화예술 동아리가 참여해 5·18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 프린지페스티벌을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5·18 민주광장을 일대를 시민이 복작이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도 마련했다. 겨울에는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LED를 활용해 명품 빛거리로 꾸밀 계획이다.

인접한 전일빌딩을 복합문화센터로 구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빌딩 옥상에 스카이워크를 설치



광주시 동구 구도심의 한 가운데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역사를 함께 한 전일빌딩과 민주평화광장 정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는 등 전일빌딩을 관광자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시비(160억원)로 건물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전기설비 공사 등을 추진하고, 국비를 들여 문화전당 지원시설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복안이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교류센터, 아카이브,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1층 일부와 2~3층은 '시민참여존'으로,

공공 전자도서관, 문화센터, 남도관광 홍보센터 등이 조성된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존'으로 불릴 4~7층에는 ICT 기업 등이 입주한다. 이곳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 공간이다.

8~9층은 '아시아 융복합콘텐츠 개발지원센터'로 극장 형태의 홀로그램 상영관,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시는 10층과 옥상을 '아시아 문화전당 관광자원화존'으로 조성해 조망시설, 승강기 등을 갖춘 명소로 꾸미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 등 아시아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인할 수 있는 특급호텔과 시내면세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전당의 성패 여부는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권과 정부, 문화전당과 협력해 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허브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신안천일염 국가어업유산 지정되나

해수부, 비금도 등 현장 평가  
지정 여부 20일 통보



국민소금 신안천일염 산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비금도를 방문해 대동염전 등 비금도 일대 천일염전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신안군이 지난 7월 해수부에 신안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현장평가 후 '신안천일염업이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국가어업유산 지정이 되면 향후 세계어업유산 지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어업유산 지정 여부는 오는 20일께 통보될 예정이다. 군은 애초 지난해 7월 신안천일염업의 효시가 된 대동염전(등록문화재 제362호)에 대해 국가어업

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지정 대상을 대동염전을 포함한 전체 신안천일염업으로 확대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지난 7월 재신청을 했다.

신안천일염업이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신안천일염의 신뢰도와 국내외 지명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천일염산지인 신안에서는 1948년께 비금도 450여 가구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면서 천일염 생산이 시작됐다. 2660ha 염전에서 전국 생산량의 70%인 연간 23만t이 생산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유산을 국가가 지정·관리함으로써 어촌의 자원과 생활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어촌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든 제도다. 지금까지 제주 해녀어업(1호), 전남 보성 뽕배업(2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3호) 등 3개 어업이 지정돼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 섬진강 연어 208마리 회귀...18년간 2338마리

## 내년 100만 마리 방류

지난해 섬진강에서 방류된 연어 가운데 208마리가 회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718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해 현재까지 2338마리가 섬진강으로 돌아왔다. 방류 초기 되돌아오는 연어는 10여 마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8마리로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했다. 내년에는 10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북태평양 연어의 연구와 효과 조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섬진강수역에서 연어 자원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어의 첫 회귀일은 10월 11일이었다. 올해도

연어 회귀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는 10월 중순께 많은 양이 돌아올 전망이다.

섬진강 연어 자원량 조사는 광양 다압면 고사리 지선과 경남 하동 약양면 평사리 지선에 그물을 설치하고,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어미연어를 포획해 개체수, 연령, 성 성숙도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섬진강 연어의 체계적 자원 조성 관리로 통해 섬진강 수역 생태계를 회복하고, 연어자원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섬진강은 연어가 돌아오는 최남단에 위치한 산란장으로, 이듬해 방류된 어린 연어는 일본 북해도를 거쳐 북태평양과 북극해에서 3~5년간 어미로 성장 한 후, 10~11월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모전회귀) 산란 후 생을 마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화물연대 파업에 광양항 물동량 20%대 급락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를 맞아 광양항 물동량은 크게 줄었지만 화물 운송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광양항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전날 광양항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52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이는 평상시 광양항의 하루 평균 물동량 7034TEU과 비교해 21.7%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비상대책본부는 이 같은 반출입 물량 감소가 파업의 영향이 아니라 화주 측의 자체적인 물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화주 측에서 파업 이전에 확보한 물량을 미리 반출했다는 것이다.

또 화주 측이 노조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파업 이후 예정된 운송을 취소하고

물량 반입을 하지 않고 있어 전체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광양항이 보유한 컨테이너 차량 741대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은 304대인데 이날 현재까지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책본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동시에 물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보 단계로 올리고 운송사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운송방해 사례 등을 관찰하고 있다.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물량 처리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며 "물동량이 줄어 있는 데다 일행하는 선박의 수에 따라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단 쌀값 대책 요구 결의문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1일 나주시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제216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규 의장)에 참석한 의장단은 "어느 때 보다 후독한 폭염·가뭄과 싸우며, 쌀과 정성으로 가꾼 황금 들녘이 올해도 풍년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한숨만 가득하다"며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해남군 김주환 의장의 대표발의로 발

표했다. 의장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 전면 중단 및 구체적인 수입안정 종합대책 적극 수립·시행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100톤 이상 확대 및 작년 수매가로 즉각 전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및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7력)를 10배높이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도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게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70평 ▶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층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좋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4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남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형 ▶ 가래가 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